

# 7-9세기 신라와 일본의 불교교류에 대한 연구동향 검토

최연식 (목포대학교 역사학과)

## 국문요약

7-8세기에 신라와 일본의 불교교류는 대단히 활발하였지만 그러한 교류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는 史料의 부족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두 나라의 불교를 관련지어 검토하려는 관심의 부족에도 원인이 있다. 다행히 1970년대 이후 신라와 일본의 불교를 관련지어 검토하려 한 선구적 연구자들에 의하여 당시 두 나라의 불교교류의 구체적 실태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1970년대초 일본의 攝論宗이 신라에 유학하였던 승려들에 의하여 전래되었다는 연구를 통하여 나라시대 불교계의 주류였던 唯識學이 신라 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는 사실이 주목되게 되었다. 이후 일본 고대 불교

**불교학리뷰** (Critical Review for Buddhist Studies)

8권 (2010, 12) 9p~41p

사상에 영향을 미친 신라불교에 대한 재인식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때까지 등한시되었던 신라와 일본의 불교교류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이후 일본의 聖德太子信仰의 변천과정에 신라 불교계의 영향이 있었음을 밝히는 연구 및 일본 고대의 불교문헌과 불교조각 등에 미친 신라 불교의 영향을 밝히는 중요한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나라시대 寫經文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8세기 중엽의 東大寺 창건과 일본 華嚴宗 개창에 신라 불교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일본 고대의 화엄학문헌들을 검토하여 일본 화엄학에 미친 신라 불교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그 결과 8세기이후 일본의 화엄학에는 元曉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義相(義湘)의 사상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일본 나라시대의 화엄학 문헌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일본의 화엄종이 형성되던 8세기 후반에는 중국의 화엄학자 法藏의 사상과 함께 元曉, 太賢과 같은 신라 불교학자들의 사상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9세기 이후에는 신라 불교의 영향이 축소되는 가운데 의상계의 화엄사상도 일부 전해지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화엄종 이외의 학파에 미친 신라 불교의 영향에 대해서는 나라시대의 法相宗에 신라 유식학의 영향이 중국 불교의 영향에 뒤지지 않았다는 시론적 견해들이 제시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연구로는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7-9세기 신라와 일본의 불교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唯識學의 교류에 대한 연구는 두 나라의 불교교류의 모습을 밝히는데 있어 특히 중요한 문제로서 앞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7-9세기 신라와 일본의 불교교류에 대하여 적지 않은 연구성과가 있지만, 이러한 연구성과들이 두 나라의 역사 개설서들에는 아직 제대로

로 소개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고대 불교사를 자국의 승려들의 활동과 불교계의 동향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고 있다. 신라와 일본의 불교교류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교류사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두 나라의 고대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고대 불교에 관한 자료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두 나라의 불교계의 동향을 상호 비교하여 이해하면 각국의 불교계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신라와 일본의 고대 불교사에 대한 연구는 상호 교류의 문제도 시야에 넣어서 보다 폭넓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신라불교, 나라시대 불교, 원효, 화엄종, 법상종, 타무라 엔쵸  
(田村圓澄)

## 머리말

7세기 후반에서 9세기말 사이에 한국과 일본은 매우 활발하고 생산적인 문화교류를 행하였다. 7세기 후반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동아시아의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통일신라와 역시 7세기 후반 타이카(大化) 개신을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형성한 일본은 새롭게 형성된 唐나라 중심의 세계 질서 안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확보하고 국가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특히 당나라의 선진 문화 수용을 통해 국가체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일본은 신라를 통한 당나라의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신라의 문화도 폭넓게 수용하게 되었다.

당시 문화 전반에서 차지하는 불교의 위상이나 당나라에 못지않게 높은 수준을 보였던 통일신라 불교학의 수준을 고려할 때, 불교 분야의 교류는 통일신라와 일본 사이의 문화교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일본의 불교는 백제를 비롯한 한반도 고대국가들의 영향 하에 기초가 마련되었으므로, 삼국의 불교를 계승한 통일신라의 불교는 별다른 이질감 없이 기존의 불교 수용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에 수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 통일신라와 일본의 불교 교류의 실상은 그다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문헌자료에 승려들의 교류, 특히 일본 승려의 신라 유학 사례가 적지 않게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이름과 유학 시기만 알려져 있을 뿐, 그들이 신라에서 어떠한 불교를 수학하였으며 그것이 일본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들은 전해지고 있지 않다. 또한 당시 일본의 寫經 기록들에는 적지 않은 신라 승려들의 저술이 일본 승려들에 의해 필사되어 읽혔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책을 읽었던 일본 승려들의 저술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신라의 불교 사상이 일본 승려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이처럼 구체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7-9세기 신라와 일본의 불교교류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1970년대 이후 제한된 자료를 통하여 당시 두 나라 사이의 불교교류의 모습을 추적하는 선구적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신라와 일본의 불교교류 실상, 나아가 당시 두 나라 불교계의 구체적 동향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역사학자 이외에 불교학 전공자들이 참여하여 당시의 불교 저술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거기에 나타난 사상적 교류의 실상을 밝혀내는 등 연구의 내용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 당시의 활발한 불교교류를 고려할 때 현재까지의 연구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점차 많은 내용을 밝히는 단계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7-9세기 신라와 일본의 불교교류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역사적 사실들을 정리하고,<sup>1)</sup> 나아가 이 분야 연구의 앞으로의 과제와 당시 한국과 일본의 불교교류가 두 나라 불교의 전개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7-9세기 신라와 일본의 불교교류 관련 연구의 현황

7세기 후반 이후 신라와 일본의 불교교류가 활발하였음은 일본의 史書에 전하는 일본 승려들의 활발한 신라 유학 및 일본 고대의 寫經 문서에 보이는 신라 승려들의 저술에 대한 빈번한 筆寫 사실에서 확인된다. 신라에 유학한 승려들은 ‘新羅學問僧’으로 불렸는데, 연대기 자료인 《日本書紀》와 《續日本記》에는 모두 14명의 新羅學問僧이 보이고 있는데,<sup>2)</sup> 이들은 공식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파견된 경우이고 그밖에 확인되지 않았거나 私的으로 유학한 승려들의 수는 더욱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sup>3)</sup> 또한 唐으로 유학한 승려들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入唐 혹은 歸國 길에 신라를 경유하면서 일정 정도 신라 불교에 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sup>4)</sup> 이들을 포함하면 신라에서 불교를 공부하거나 신라 불교를 접한 승려들의 수는 상당한 숫자

1) 통일신라와 일본 사이의 불교교류에 관한 주요한 역사적 사실 및 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서는 정병삼, 2002 「고대 한국과 일본의 불교교류」 『한국고대사연구』 27에 종합적으로 정리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연구의 발전과정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2) 觀常·靈觀(685년 귀국), 智隆(687년 귀국), 明聰·觀智(689년 귀국), 辨通·神叡(693년 출국), 山田史御形(귀국연대 미상; 이상 《日本書紀》), 義法·義基·惣集·慈定·定達(707년 귀국), 行善(718년 귀국; 이상 《續日本記》).

3) 11세기에 편찬된 佛書목록인 《東域傳燈目錄》에도 《瑜伽論料簡》의 撰者로 ‘新羅學問僧 行達’이 보이고 있다.(大正藏 55책, 1157a)

4) 隋나 唐에 유학한 승려들 중 惠濟·惠光(623년 귀국), 惠隱·惠雲(639년 귀국), 請安(640년 귀국), 智通·智達(658년 출국), 智宗·淨願(690년 귀국) 등이 출국 혹은 귀국할 때 新羅船을 이용하였으며, 이들은 도중 신라에 일정 기간 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의 8세기 奈良時代の 寫經 기록에 의하면 신라 승려의 저술 140여 종이 180여 회에 걸쳐 필사되었으며,<sup>5)</sup> 이는 900여 회에 이르는 중국 승려의 저술에 대한 필사횟수의 4.5분의 1에 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적지 않은 일본 승려들이 신라에 유학하여 불교를 공부하였고, 많은 신라 승려들의 저술이 일본에서 필사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신라와 일본의 불교교류가 활발하였고 일본 불교계가 신라 불교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해지는 자료들은 승려의 이름과 저술 제목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신라와 일본에서의 행적이나 해당 저술들의 일본 불교계에서의 유통 상황 및 일본 불교계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사실은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당시 신라와 일본 불교계가 긴밀한 관련을 맺었다는 전체적 흐름만 알 수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체적인 흐름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던 신라와 일본의 불교교류에 관한 구체적 연구는 1970년대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 분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타무라 엔쵸(田村圓澄)는<sup>6)</sup>

5) 石田茂作, 1930<奈良朝現在一切經疏目錄>(《寫經より見たる奈良朝佛教の研究》附錄, 東京 東洋文庫)에 의함. 승려별로 구분하면 元曉의 저술이 60종 83회로 가장 많으며, 義寂 14종 22회, 憬興 14종 20회, 圓測 16종 19회, 玄一 7종 10회, 勝莊 5종 7회, 道詮 3종 5회, 智仁 4종 4회, 太賢 3종 4회, 大衍 2종 4회, 義相 1종 3회, 令因 2종 2회, 法安 1종 2회, 圓光 1종 2회, 기타 明晶·表員·遁倫·順憬·法位·神昉·道詮·義榮·道勝·審祥 등이 1종 1회씩이다.

6) 田村圓澄는 九州大學 교수로 재직하던 1960년대 후반 미국의 베트남 침공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항의 집회를 겪으면서 일본 고대불교사를 현실과 관련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그것이 일본 불교와 한국 불교의 관계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비슷한 시기에 일본 사회의 反美 분위기 속에서 일본사를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을 주장한 西嶋定生の 학문 경향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田村는 한편으로 1960년대말 미국 유학 중에 서구의 일본학 연구자들이 동아시아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일본을 연구하는 것

1970년대 초에 일본 나라시대 불교학의 주류적 흐름이었던 唯識學이 신라를 통해 수용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일본 고대불교 사상에 미친 신라 불교의 영향을 재인식할 필요성을 제창하였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유식학은 중국에 유학하여 玄奘과 그의 문도들이 수립한 新唯識의 法相宗을 수학하고 돌아온 승려들에 의해 전래되었다고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타무라는 기존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일본 법상종의 初傳者로 알려진 道昭나 두 번째 전래자인 智通·智達 등은 중국이 아닌 신라에 유학하였으며, 그들이 전래해 온 것은 당시 신라에서 성행하고 있던 舊唯識의 攝論宗이라고 주장하였다.<sup>7)</sup> 그리고 실제로 법상종이 전래된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래자로 알려진 智鳳과 玄昉 등이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8세기 이후의 일이며 이때에 이르러 기존의 섭론종이 법상종에 포섭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섭론종은 중국에서 6세기말에 등장하여 7세기 전반 경까지의 짧은 시기 동안 존재하였던 학파로서 종래 일본 고대불교의 학파들을 총칭하는 6宗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무라의 연구는 일본 고대불교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신라불교와의 관련성을 통하여 일본 고대불교를 재검토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8)</sup>

타무라는 이어서 일본에서의 쇼토쿠(聖德) 太子에 대한 신앙의 변화과

---

을 통해서도 동아시아적 관점에서의 일본불교사를 이해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7) 田村圓澄, 1970「攝論宗の日本傳來について」『南都佛教』25; 1974「攝論宗の日本傳來について(補説)」『南都佛教』32.
- 8) 나라시대의 불교 사상 중에 攝論學이 있었으며 그것은 아마도 신라로부터 전해져왔을 것이라는 견해는 일찍이 富貴原章信에 의해서도 제시된 바 있지만(富貴原章信, 1944『日本唯識思想史』第二章 攝論宗の日本傳來), 그 구체적인 전래 시기나 전래자가 제시되지 않은 추정이었다.

정을 추적하면서 그러한 인식 변화의 배경에 신라 불교의 영향이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sup>9)</sup> 이에 의하면 쇼토쿠 태자의 사망 이후 그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코류지(廣隆寺) 등의 사찰에는 신라 계통의 반가사유상들이 봉안되었는데, 이는 쇼토쿠 태자가 생전에 즉 신라 및 신라계 이주민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를 추모하는 사찰들이 대부분 신라계 이주민들에 의해 건립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신라의 경우 반가사유상은 미륵보살의 화신으로서 이 세상에 이상 세계를 가져오는 선구자적인 존재, 구체적으로는 花郎으로 여겨지고 있었으므로 쇼토쿠 태자도 일본에서 그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 한편 8세기 이후에는 반가사유상에 대신하여 호류지(法隆寺) 등에 봉안된 석가모니상이 쇼토쿠 태자를 상징하는 불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이 역시 신라 불교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즉 삼국통일 이후 신라에서는 반가사유상에 대한 신앙이 쇠퇴하고 그에 대신하여 중국의 불교와 구별되는 신라의 독자적인 불교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었으며, 중국 유학을 단념하고 독학으로 독자적인 불교사상체계를 수립한 元曉는 그 상징적 인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신라 불교의 영향 하에 일본에서도 일본의 불교를 상징하는 인물이 요구되었고, 그에 따라 쇼토쿠 태자를 일본에 化現하였던 부처로서 일본에서 불교사상체계를 수립하고 일본의 國家佛敎를 완성한 존재로 여기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타무라는 이와 같은 쇼토쿠 태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타이카(大化) 개신으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이루게 된 일본 왕실이 기존 귀족층과 연결되어 있던 백제계 불교를 대신하기 위해 신라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결과로서, 7세기 후반에서 9세기초 헤이안(平安; 교토) 천도 이전까지의 이른바 하쿠호(白鳳), 덴표(天平) 시기의 문화는 신라 문화 특히 신라 불교와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았다.<sup>10)</sup> 또한 倭로부터 日本으로 국호의 변경에

9) 田村圓澄, 1975「半跏思惟像と聖德太子信仰」『新羅と飛鳥・白鳳の仏敎文化』, 吉川弘文館

나타나는 일본의 국가주의 역시 唐과의 대립 속에서 국가의식을 성장시킨 신라 문화의 영향이라고 보았다.

타무라의 연구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문헌학과 미술사분야에서도 나라 시대불교와 신라불교의 긴밀한 관련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일본 고대 불교조각 연구자인 모리 히사시(毛利 久)는 타무라와의 교류를 배경으로 신라와 고대일본의 불교조각을 비교하여 신라의 불교조각 양식이 일본의 불교조각에 반영되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sup>11)</sup> 그는 7세기 이후 신라 석불에는 군위 삼존불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신체를 덩어리적으로 표현하는 양식과 금광사 여래입상에 보이는 것과 같은 유려한 文文표현의 양식 등 두 가지 양식이 나타나는데,<sup>12)</sup> 이 중 첫 번째 양식이 신라와 관련이 있는 当麻氏의 氏寺인 当麻寺 불상이나 한반도 출신 이주민들의 거주 지역인 狛坂의 마애불에 나타나고 있으며, 두 번째 양식은 7세기 후반 일본 하쿠호(白鳳) 불상들에 널리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sup>13)</sup>

종래 하쿠호 불상들은 당나라 불상 양식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는데, 모리는 7세기 후반 일본과 당나라의 교류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던

10) 7세기 후반 신라와 일본에서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는 《金光明經》 신앙과 雙塔 가람 양식 사찰의 등장 등을 그 구체적 예로 들고 있다. (田村圓澄, 1980「飛鳥・白鳳仏教の諸相」『古代朝鮮佛敎と日本佛敎』, 吉川弘文館) 한편 中井眞孝 역시 遣唐使 中斷期에 신라를 통한 문화교류가 활발하였고 그 결과 7세기 후반에서 8세기에 걸쳐 일본의 불교가 신라 불교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그 구체적 사례로서 일본의 國大寺제도 및 造〇〇寺司제도와 신라의 成典寺院 제도의 유사성, 신라와 일본 왕실에서의 火葬의 등장, 신라 慈藏과 僧旻의 정책 고문으로서의 위상 등을 들고 있다. (中井眞孝, 1994『朝鮮と日本の古代佛敎』, 東方出版)

11) 田村보다 1년 연상인 毛利 久는 京都大學 史學科 출신으로 京都博物館과 神戸大學, 奈良大學 등에서 근무하였고, 일본의 고대와 중세 불교조각에 대해 연구하였다.

12) 그는 이 두 가지 양식이 석굴암 본존불에서 종합화되어 표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13) 毛利 久, 1973「当麻寺彌勒佛像と新羅様式」『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20; 1975「白鳳彫刻の新羅的要素」『新羅と飛鳥・白鳳の仏敎文化』, 吉川弘文館

사실에 입각하여 당나라 양식보다도 신라 불상양식과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쿠호 불상에 반영된 신라의 불상양식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한편으로 그는 신라의 불상 양식은 중국의 양식을 수용하여 신라에 맞게 변화시킨 것이며, 하쿠호 시대 불상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童顔形 모습 역시 신라의 양식을 수용하면서 일본에 맞게 변형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코류지의 寶冠 반가사유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불상이 신라 양식이며, 이후 7세기 중엽 이후 제작된 일본의 반가사유상들에 이러한 신라의 양식이 계승되고 있음을 밝혔는데,<sup>14)</sup> 이는 일본에서의 신라 불상 양식 수용이 하쿠호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임을 보여주는 동시에<sup>15)</sup> 코류지 보관 반가사유상이 쇼토쿠 태자를 추모하기 위해 신라에서 기증된 불상으로서 신라와 쇼토쿠 태자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며, 이후 7세기 후반 일본 불교가 신라 불교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계기가 되는 불상이라는 타무라의 견해를 보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한편 東大寺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들을 이용하여 동대사를 비롯한 나라 지역 사찰들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온 호리이케 슌포(堀池春峰)<sup>17)</sup> 동대사에 남아 있는 나라시대의 寫經 관련 문서들을 토대로 8세기 중엽 동대사 창건과 화엄종 개창에 신라 불교의 영향이 지대하였음을 입증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sup>18)</sup> 역사 자료를 통하여 동대사 창건 과정을 검토한

14) 毛利 久, 1977「廣隆寺寶冠彌勒像と新羅様式の流入」『白初洪淳和博士還曆紀念史學論叢』

15) 이런 시각에서 그는 삼국시대의 불상양식과 일본 飛鳥시대 불상 양식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毛利 久, 1978「三國彫刻と飛鳥彫刻」『百濟文化と飛鳥文化』, 吉川弘文館)

16) 田村나 毛利와 달리 廣隆寺 寶冠 반가사유상을 신라가 아닌 백제(계) 불상으로 보는 견해도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다.(岩崎和子, 1985「廣隆寺寶冠彌勒に関する二、三の考察」『半跏思惟像の研究』, 吉川弘文館)

17) 堀池春峰은 京都大學 史學科 출신으로 奈良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 고대 寺院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호리이케는 동대사 창건에 한반도 출신 이주민들의 역할이 컸으며,<sup>19)</sup> 그 중에서도 新羅學問僧 審詳의 《화엄경》 강설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호리이케는 나아가 당시의 寫經 문서들에 나타난 기록을 면밀히 정리하여 심상과 관련된 문헌들의 행방을 추적하여 심상이 소장하였던 불교문헌의 목록을 재구성하였다. <大安寺審詳師經錄>으로 명명된 이 목록에는 신라 승려의 저술들이 중국 승려의 저술에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sup>20)</sup> 정창원에 남아 있는 동대사의 도서 대출 관련 기록이나 사경 문서 등을 통하여 심상의 사후 동대사에 보관되었던 이 문헌들이 나라시대 승려와 귀족들에 의해 중시되었음이 확인되었다.<sup>21)</sup>

동대사 창건 직전 심상의 《화엄경》 강설은 이전부터 알려졌던 사실이었지만 종래에는 동대사 창건 및 화엄종 개창에 대하여 일본 왕실 혹은 천황의 정치적 지향 혹은 개인적 신앙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불교측에서도 일본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良辨이 중시되었을 뿐 심상의 역할은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었다. 이런 점에서 호리이케의 연구는 고문서와 같은 구체적 자료를 통하여 심상의 역할을 재확인한 연구

18) 堀池春峰, 1973「華嚴經講說より見た良弁と審詳」『南都佛教』31

19) 東大寺の前身인 金鐘山寺를 창건하고, 동대사 개창을 주창하였던 良弁은 백제계 이주민의 후손이었고, 심상을 이어서 《화엄경》 강설을 담당하였던 慈訓과 慶俊 역시 백제계 이주민인 船氏와 葛井氏 출신이었다. 또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대사 개창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行基 역시 한반도 이주민의 후손이었다.

20) 신라 출신인 元曉의 저술이 32부 78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같은 신라 출신인 義寂의 저술 역시 8부 15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 승려의 저술로는 慧遠(7부 30권), 法藏(7부 30권), 窺基(5부 20권) 등의 저술이 많은 편이었다.

21) 일본 나라시대의 寫經 대상 도서 중에 신라 승려의 저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로 볼 때 나라시대 불교계에서 신라 불교의 영향이 중요하였다는 사실은 나라시대의 寫經 기록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 이시다 모사쿠(石田茂作)의 선구적 연구에도 언급되었다. 하지만 寫經 대상이 된 신라의 문헌들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일본에 수용되었으며, 당시 일본 불교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시도되지 못하였다.

로서 의미있는 것이었다. 특히 심상이 소장하였던 문헌의 구성 및 그것이 이후 일본 불교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화엄종의 성립 뿐 아니라 나라시대 불교학 전반에 신라 불교학이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로서, 이후 신라 불교학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들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호리이케의 연구에 기초하여 일본 화엄종과 신라 불교와의 관련성을 추적하는 연구들이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다.<sup>22)</sup>

먼저 타무라는 호리이케의 연구를 계승하여 東大寺의 창건에 미친 신라 불교와 신라계 이주민들의 영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日本書紀』에 東大寺와 大佛 창건에 협조한 神으로 묘사된 宇佐의 八幡神에 대하여 본래 신라계 이주민들의 신으로서, 宇佐 八幡神을 앞세운 신라계 이주민들이 東大寺 건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며,<sup>23)</sup> 동대사 창건에 민중들과 함께 참여한 行基의 민중적 불교는 신라 원효의 불교를 계승한 것이라고 하였다.<sup>24)</sup> 그는 또한 비로자나大佛 건립을 발원한 聖武天皇이 신라계 이주민들이 건립한 河内 知識寺에서 비로자나불을 참배한 사실을 들어 당시 신라계 이주민과 신라에 유학한 學問僧들을 통해 義相에 의해 형성된 신라의 화엄사상이 이미 전래되어 있었고, 그것이 東大寺와 비로자나대불 건설의 기초가 되었을 수 있다고 이해하였다.<sup>25)</sup>

한편으로 타무라는 동대사와 大佛의 건립이 그동안 유지되어 온 일본과

22) 신라 촌락문서가 발견된 동대사 正倉院 소장의 《화엄경론》 經帙이 심상이 소장하였던 문헌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신라 촌락문서의 제작 연대 또한 심상의 활동 시기 이후로 내려올 수 없다는 최근의 연구(尹善泰, 1999「正倉院所藏 新羅村落文書の 作成年代 - 日本の『華嚴經論』流通状況を 중심으로-」『震檀學報』80) 또한 호리이케의 연구가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3) 田村圓澄, 1980「東大寺創建を支えたもの」『古代朝鮮佛教と日本佛教』, 吉川弘文館

24) 田村圓澄, 1980「行基と新羅佛教」『위 책』

25) 田村圓澄, 1999「盧舍那佛造立と聖武天皇」『古代日本の国家と仏教』, 吉川弘文館

신라의 교류가 단절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聖武天皇의 비로자나불 건립은 일본의 부용국이기를 거부하는 신라를 《화엄경》의 法界사상을 매개로 계속하여 일본의 天下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였지만 신라측의 거부로 인하여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sup>26)</sup> 이러한 입장에서 타무라는 그동안 경제 교류의 측면에서 주로 이해되어 왔던 752년 신라 왕자 일행의 방문을 일본측의 요구에 의해 신라국왕의 대리자로서 일본의 동대사 大佛의 낙성식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이러한 방문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일본측의 부용국 대우를 거부하여 양국의 관계는 단절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sup>27)</sup>

동대사 창건 및 비로자나 大佛 造立은 일본 고대사의 중요한 사건으로서 이것이 갖는 역사적, 사상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져 왔다. 타무라의 이해는 그동안 주로 행해져 온 일본 국내의 정치사 혹은 불교사적 이해를 지양하고 신라와의 관련성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 한 것으로서 기존과 다른 차원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대사 창건에 관계된 여러 주체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들과 신라와의 관계를 해명해 간 것은 동대사 창건 당시 일본과 신라 불교와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 이해와 달리 동대사 창건을 계기로 화엄종이 수용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신라 화엄종이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대사가 창건될 수 있었다는 이해는 양국의 불교교류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동대사 및 大佛의 건립을 통해 신라를 부용국으로 위치시키려 했다는 해석은 당시의 국제관계를 일본측의 시각에서만 해석한 것인 동시에 불교의 개념과 이론을 그대로 현실 정치에 투영시키려 한 과도

26) 田村圓澄, 1999「善天の下法界」『위 책』

27) 田村圓澄, 1999「新羅王子金泰廉の東大寺參拜」『위 책』

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동대사 개창 당시 수용된 신라의 화엄사상을 의상의 사상과 연결시키는 것은 당시 신라의 화엄사상이 다양하였고 특히 일본에 수용된 신라 화엄사상이 의상보다는 원효 계통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라화엄=의상’이라는 기존의 도식적인 이해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의 화엄학 문헌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신라 불교사상이 일본 화엄학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려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먼저 요시즈 요시히데(吉津宜英)는 일본의 화엄종 문헌 중에 보이는 祖師系譜圖 중에 中國祖師와 日本祖師의 사이에 신라 승려인 元曉-太賢-表員-見登의 계보가 섞여 있고, 신라 화엄학 문헌인 《大乘起信論同異略集》와 《大乘起信論內義略探記》 등에 원효와 법장의 사상이 함께 중시되고 있는 것을 실마리로 8세기 이후 신라에서 원효와 중국의 법장의 사상을 융합하는 화엄학이 등장하였고 이것이 일본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sup>28)</sup> 이는 신라의 화엄학을 의상의 사상과 동일시하던 기존의 이해와 달리 원효에서 태현으로 이어지는 사상적 흐름이 일본에 수용된 신라 화엄사상의 주류적 흐름이었음을 밝힌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시에, 본래 성격을 달리하는 원효와 법장의 사상이 하나로 통합되어 중국의 화엄학과 구별되는 신라만의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형성하였고 이것이 일본 고대 화엄사상의 기반이 되었다고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가설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신라와 일본 화엄사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29)</sup>

28) 吉津宜英, 1986「新羅の華嚴教學への一視點 - 元曉・法藏融合形態をめぐって-」『韓國佛敎學SEMINAR』2; 1993, 「八世紀東アジア佛敎研究への展望」『韓國佛敎學SEMINAR』5

29) 원효의 사상은 다양한 대승불교의 사상체계가 본질적으로 대등하며 이를 모두 會通할 때 비로소 완전한 가르침이 드러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법장은 다양한 대승불교의 사상체계 중에서 화엄사상만이 가장 우월하고 완전하며 그 안에 다른 모든 사상체계가 포섭되어 있다

이러한 요시즈의 견해는 나라시대 일본의 화엄학자 壽靈의 《五教章指事》를 검토한 다카하라 아츠히사(高原淳尙)의 연구에 의하여 계승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5교장지사》는 형식적으로는 중국 화엄학 조사인 법장을 중시하면서도 기본적 입장은 원효의 사상에 입각하고 있으며 원효의 통합적 사상에 기초하여 법장의 화엄교학을 변형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30)</sup> 이런 점에서 《5교장지사》는 요시즈가 제시한 원효·법장 융합형태의 구체적 사례로 이해되었다. 한편 같은 《五教章指事》를 검토한 이시이 코세이(石井公成)는 이 책이 원효의 사상을 중시하는 것과 함께 이 책에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대상이 신라 의상계 화엄의 특색있는 이론인 3乘 極果廻心說과 상통하는 점을 지적하고 원효의 사상만이 아니라 의상계 사상도 당시 일본 불교계에 일정하게 소개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sup>31)</sup>

이처럼 일본 화엄학에 미친 신라 불교사상의 구체적 내용이 검토되는 가운데 崔鉉植은 종래 신라의 화엄학 저술로 알려져 온 문헌들이 실제로는 일본에서 저술되었음을 밝히고, 이 문헌의 내용들을 통하여 나라시대 일본 화엄학의 동향 및 신라 불교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종래 신라 승려 見登의 저술로 알려졌던 《大乘起信論同異略集》이 실제로는 동대사 창건 주체인 良辨과 審祥에게 수학하였던 일본 승려 智憬이 편찬한 사실을 밝히고, 이 책에 나타나는 법장과 원효, 태현의 저술들을 토대로 당시 일본 화엄종의 기본 문헌으로 인식되던 《대승기신론》의 사상적 우월성을 선양하는 한편 일본에서 화엄종과 대립관계에 있던 법상종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成唯識論》의 한계를 지적하는 경향이 8세기 후반 일본 화엄학

는 입장이다. 吉津宜英는 이러한 두 사상이 결합된 결과 모든 사상을 포괄하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상을 지향하는 절대주의적 사상이 형성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30) 高原淳尙, 1988 「壽靈『五教章指事』の教學的性格について」 『南都佛教』60

31) 石井公成, 1987 「奈良朝華嚴學の研究 -壽靈『五教章指事』を中心として-」 『華嚴學研究』創刊號

의 주요한 사상적 특성임을 밝혔다.<sup>32)</sup> 그리고 역시 신라 승려 견등의 저술로 알려져 온 《華嚴一乘成佛妙義》는 인용 문헌에 대한 호칭 및 서술 내용으로 볼 때 신라가 아닌 일본에서 일본 화엄학의 동향을 고려하여 저술된 문헌임을 확인하고, 이 책에 보이는 신라 의상계 화엄사상에 대한 중시는 신라 불교계의 사상적 변화에 영향 받아 원효보다도 의상의 사상에 주목하던 9세기 이후 일본 화엄학계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sup>33)</sup> 아울러 9세기 이후 일본의 화엄학 문헌에 《新羅記》라는 이름으로 인용되고 있는 문헌의 逸文을 수집하여 이 책이 신라 의상계 화엄학자인 珍嵩의 《孔目章記》임을 확인하고, 이 문헌의 빈번한 인용은 신라 의상계 화엄사상이 일본 화엄학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sup>34)</sup>

이후 나라와 헤이안 시대 일본 화엄학 문헌의 사상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 결과 일본의 화엄종이 처음 형성되던 8세기 후반에는 중국 법장의 화엄사상과 함께 원효와 태현과 같은 신라 승려의 사상이 일본의 화엄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9세기 이후에는 신라 불교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법장의 사상이 유일한 권위를 누리는 가운데 기존에 보이지 않던 의상계 화엄사상의 영향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sup>35)</sup> 이러한 변화는 일본 화엄학계에서의 신라 불교의 수용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32) 崔鉉植, 2001『『大乘起信論同異略集』の著者について』『駒澤短期大學佛教論集』7. 이와 같은 『大乘起信論同異略集』의 日本撰述說을 수용한 吉津宜英은 기존의 견해를 일부 수정하여 원효와 법장의 사상을 융합한 형태의 화엄사상은 신라가 아닌 나라시대의 일본에서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사상체계가 이후 일본 불교사상의 기반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였다.(吉津宜英, 2003『法藏教學の形成と展開』『論集 東大寺の歴史と教學』, 東大寺)

33) 崔鉉植, 2001『新羅 見登의 著述과 思想傾向』『韓國史研究』115

34) 崔鉉植, 2003『珍嵩의 『孔目章記』逸文에 대한 연구』『天台學研究』4

35) 崔鉉植, 2003『日本 古代華嚴과 新羅佛教 - 奈良·平安시대 華嚴學 문헌에 반영된 신라불교학-』『韓國思想史學』21

신라 불교계 내에서의 사상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존하는 일본 最古의 화엄학 문헌인 《大乘起信論同異略集》의 저자 智憬과 관련하여서는 종래 元曉의 저술로 알려져 온 《遊心安樂道》가 실제로는 원효의 저술이 아니라 智憬이 원효의 《無量壽經宗要》에 대해 지은 주석서가 후대에 잘못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는데,<sup>36)</sup> 이 《遊心安樂道》 역시 원효와 중국 승려 道綽의 사상을 종합하여 저술되었다는 점에서 지경의 원효 사상에 대한 중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大乘起信論同異略集》에는 신라와 고려에만 유통되었던 경전을 인용하고 있어서 8세기 전반기에 신라에서 찬술된 문헌임이 확인된 《起信論一心二門大意》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智憬에 미친 신라 불교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sup>37)</sup>

이와 같이 고대 일본 화엄학에 미친 신라 불교학의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화엄학 이외의 다른 학파와 신라 불교학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타무라에 의해 섭론종을 수용한 인물로 지목된 智通·智達 등이 일찍부터 신라에서 공부하였고, 타무라에 의해 法相宗의 최초의 수용자로 간주된 智鳳 역시 중국이 아닌 신라에서 법상종을 수학하였으며, 9세기 이후 일본의 법상종 문헌에서 원측을 비롯한 신라의 유식학자들이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나라시대 일본 법상종에는 신라 유식학의 영향이 중국학자들 못지않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sup>38)</sup> 아직 시론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 법상종의 사상 내용을 중국만이 아닌 신라 유식학과의 관계 속에서

36) 愛宕邦康, 1994 「遊心安樂道の撰述者に関する一考察 -東大寺華嚴僧智憬とその思想的關聯に着目して-」 『南都佛教』70

37) 최연식, 2006 「신라불교 문헌으로서의 『起信論一心二門大意』」 『불교학연구』13

38) 橘川智昭, 2002 「日本 法相宗の 形成과 新羅 唯識學」 『한국불교학결집대회논집』1-上; 2002 「日本飛鳥・奈良時代における法相宗の特質について」 『불교학연구』6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 주목할 만한 연구라고 평가된다. 일본의 유식한 문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들이 다양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들 이외에 국내 학자들에 의해 일본의 불교문헌에 인용되고 있는 신라 승려들의 저술을 확인하고 수집하는 연구들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지만<sup>39)</sup> 이 연구들은 자료의 수집에 중점이 두어져 신라의 불교사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어떻게 일본 불교계에 수용되었고, 구체적으로 일본 불교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하였다. 또한 다양한 문헌자료 및 유물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아스카시대는 물론 나라시대 일본의 불교문화가 전적으로 삼국과 통일신라의 불교문화에 의존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는데, 과거 일본학계의 식민사관적 이해 방식이나 한국 고대불교의 영향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한 반론으로서는 의미를 갖지만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일부 자료에만 의존한 해석이 많아서 학계에서 납득할 수 있는 연구로 받아들여지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 2. 7-9세기 신라와 일본의 불교교류 연구의 방향과 과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7세기 이후 신라와 일본의 불교교류는 대단히 밀

39) 金相鉉, 1994「元曉師逸書輯編 - 解題 및 資料」『新羅文化』11; 1995「元曉著述의 日本流通과 그 영향」『韓日文化의 相互役割을 위한 問題』, 한국사상사학회; 2000「輯逸金光明勝王經懺興疏」『新羅文化』17·18

李萬, 1986「日本 法相關係 諸疏에 인용된 太賢法師의 唯識思想」『佛教學報』23; 1990, 1991, 1992「法相關係論疏와 新羅人の 撰述書 - 散逸本을 중심으로 -」『佛教學報』27, 28, 29; 1992「新羅 唯識家들의 '眞性'에 관한 諸說 - 善珠의 '唯識分量決'을 중심으로 -」『韓國佛教文化思想史』(伽山李智冠스님 華甲紀念論叢); 1993「新羅人 撰述의 成唯識論疏 散逸本 復元」『佛教學報』30; 1994「百濟 義榮의 唯識思想 - 佛乘說을 중심으로 -」『韓國佛教學』19(이상의 논문들은 李萬, 2000 『한국유식사상사』(장경각)에 수록되어 있음)

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구체적 모습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자료의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분야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 부족도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고대 불교 연구자들은 중국불교와의 관련성 특히 중국의 불교사상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 불교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 自國 불교사상의 원류로서 중국의 불교사상이 어떠한 내용을 가졌으며 그것이 自國의 승려들에 의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고, 그 결과 중국의 華嚴, 法相, 天台, 禪 등의 사상이 전래되는 과정 및 중국의 불교사상과 구별되는 自國 불교사상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방의 불교에 대하여는 중국 불교의 亞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두 나라의 불교가 긴밀한 교류를 가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방의 불교사상과 자신들의 불교사상을 비교하거나 상호 영향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불교계 그리고 불교 연구자들이 상대방의 불교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전통시대 이래의 흐름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불교를 전해 받은 사상적 후진국으로서 주목할 만한 사상가를 배출하지도 못하였고, 역사적으로 한국 불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고대의 불교가 한국을 통하여 수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의 단순한 전달자로서만 간주되었고 중국 불교와 구별되는 한국 불교의 독자성 및 그러한 한국 불교의 특성이 일본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긴밀하게 교류하였던 한국과 일본의 불교가 이와 같이 상대방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된 것은 9세기 이후 두 나라의 불교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6세기 이래 한국은 중국의 불교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이를 일본에 전해주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결과 6세기부터 8세기까지 중국과 한국, 일본의 불교계는 동일한 불교사상을 공유하면서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하지만 8세기 후반 이후 중국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쇠퇴를 배경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대외 교류가 위축되었고, 그에 따라 불교교류도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국제 교역과 도시 문화의 쇠퇴 속에 도시를 배경으로 발전하였던 불교 교학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쇠퇴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불교교류 필요성도 크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교학불교의 위축 속에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서도 기존의 불교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실천적 불교들이 대두하게 되었다.<sup>40)</sup>

이처럼 고대 불교교류의 중심을 이루었던 교학불교가 쇠퇴하고 새로운 실천적 불교들이 발전하면서 과거 불교의 전통은 단절되었고, 그에 따라 과거 교학불교의 내용들도 망각되어 갔다. 실천적 불교 속에서도 일부 교학불교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기는 하였지만 과거 불교의 전통이 단절됨에 따라 이전에 발전되었던 교학불교의 다양한 사상적 흐름은 무시되고, 오직 후대에 정통으로 인정된 조시들의 사상만이 유일한 사상체계로서 존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구별되는 한국과 일본의 교학불교의 내용은 물론 중국의 교학불교 중에서도 정통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상체계들은 무시되고 잊혀지게 되었다.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自國의 불교사에 대한 이해는 중국의 정통적 불교사상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로 축소되었고 그러한 인식이 19세기까지 계승되었다. 20세기 이후 자국 불교의 독자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등장하였지만 이 역시 자국에 수용된 중국

40) 최연식, 2005 「8세기 신라불교의 동향 및 동아시아 불교계」 『불교학연구』12

의 정통적 사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과거의 다양한 사상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인식은 결여되어 있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불교 연구자들은 중국의 불교와 자국의 불교의 관계에만 관심을 가질 뿐 한국과 일본의 불교교류나 상호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불교교류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통적인 불교사 이해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8세기까지의 동아시아 불교는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전개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각국의 불교 사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중국의 正統的 교학사상이 한국과 일본의 불교계에 일방적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의 학자들이 긴밀히 교류하면서 다양한 사상체계를 형성하였고, 이들이 다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각국의 상황에 맞는 여러 사상체계들을 형성해 갔던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불교는 중국 불교와의 교류 이상으로 서로 밀접하게 교류하였으므로 양국의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빠뜨릴 수 없다. 고대 일본의 불교는 중국 불교보다도 한국의 불교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였으므로 일본 고대 불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의 고대불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일본의 고대 불교는 한국의 불교에 영향 받은 것으로서 거기에는 한국 고대 불교의 모습이 적지 않게 반영되고 있다. 한국의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 한국 고대 불교의 사상적 흐름들이 나타날 뿐 아니라 한국의 불교사상에 대한 종래와는 다른 해석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일본 고대불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한국 고대불교 자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고대불교는 서로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따라서 양국의 불교교류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교류만이 아닌 양국의 고대

불교 자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70년대 이후 진행된 한국과 일본의 고대 불교 교류에 대한 연구는 양국의 교류 자체보다도 각기 자국의 불교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고대 불교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고대 불교를 서로 연결된 흐름으로 파악하고 양국 불교계의 동향을 서로 연결지어 이해하려는 연구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한국과 일본 불교계가 긴밀하게 교류하는 상황에서 한 나라 불교계에서 발생한 변화는 해당 국가만이 아니라 두 나라 전체 불교계의 변화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사건을 해당 국가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전체 불교계와 관련하여 이해하면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각은 단순히 양국 불교의 유사점을 찾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미친 영향을 찾는 연구를 탈피하여 양국 불교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고대 한국과 일본의 불교계 동향을 서로 연결지어 이해하면 두 나라 불교계의 밀접한 관련성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불교 사상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7세기 이후 신라와 일본의 불교계의 흐름을 살펴보고 두 나라의 불교교류의 구체적 모습을 밝히기 위하여 어떠한 문제들이 해명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7세기 중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신라와 일본 불교계의 주된 흐름은 三論學(宗)과 攝論學(宗)이었다. 삼론학(宗)과 섭론학(宗)은 大乘佛敎의 두 가지 흐름인 中觀사상과 唯識·如來藏사상의 중국적 형태로서<sup>41)</sup>

41) 三論學(宗)과 攝論學(宗)은 6세기 후반 중국의 江南 지방에서 체계화되었으며, 隋나라에서 唐나라 초기에 걸쳐 가장 유력한 사상 체계로 발전하였다. 唯識사상과 如來藏사상은 본래

6세기말 이후 한반도 3국에 전래되었고, 곧 3국을 통해 일본에도 전래되었다. 특히 고구려와 백제에는 삼론학이 발전하였고, 신라에는 섭론학의 영향이 강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sup>42)</sup> 일본에서는 삼론학의 흐름이 더 강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7세기 중반에는 신라와 일본 모두 삼론학과 섭론학이 불교 사상의 주된 흐름이었지만 7세기 후반 이후에는 신라에서 양자가 쇠퇴한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계속하여 삼론학과 섭론학 특히 그 중에서도 삼론학이 주된 흐름을 이루었다. 신라에서 삼론학과 섭론학이 쇠퇴한 것은 양자를 포괄하는 새로운 사상체계의 등장을 배경으로 하였다. 본래 사상계통을 달리하는 삼론학과 섭론학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달라 적지 않은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sup>43)</sup> 통일 직후 신라 불교계에서는 양자의 대립이 해소되고 양자를 포괄하는 사상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통일초 불교계를 대표하는 元曉와 義相의 사상에는 두 사상을 통합하여 이해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며<sup>44)</sup> 특히 원효의 和諍사상에는 두 사상의 이론을 수용하여 발전시키면서 양자의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sup>45)</sup>

서로 다른 사상체계였지만 6세기 중국불교계에는 양자가 서로 결합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7세기 중반 인도에 유학하고 돌아온 玄奘에 의하여 양자의 이질성이 강조되었고, 이후 양자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현장의 唯識學은 양자를 결합하여 이해하는 기존의 유식학[舊唯識]과 구분되어 새로운 유식학[新唯識]으로 불리게 되었다.

42) 6세기말 이후 일본에 건너간 고구려와 백제의 승려들은 대부분 三論學의 대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6세기말 이후 신라 불교계의 중심 인물이었던 圓光과 慈藏은 모두 중국에서 攝論學을 수학하고 돌아와 신앙하였다.

43) 최근 百濟의 문헌으로 확인된 《大乘四論玄義記》에는 삼론학의 입장에서 섭론학에 대한 비판이 여러 곳에 보이고 있다.

44) 義相이 수용한 중국 華嚴學(宗)은 攝論學의 전통에서 새롭게 수용된 新唯識의 사상을 포괄한 것으로서 의상의 사상에도 섭론사상가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大竹 晉, ) 동시에 의상의 사상 내용 중에는 중국 화엄사상가들에 보이지 않는 中觀思想的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화엄사상가로서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5) 원효는 三論學者들의 논리를 활용하여 和諍을 주장하고 있지만 和諍의 근거를 眞如의 마음

이처럼 신라에서 삼론학과 섭론학의 통합이 시도되면서 삼론학과 섭론학이 쇠퇴한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7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삼론학과 섭론학이 공존하였고 특히 삼론학은 8세기 이후에도 계속 세력을 유지하여 南都 6宗 중 하나로서 헤이안시대 이후까지도 지속되었다. 신라와 달리 일본에서 삼론학과 섭론학이 늦게까지 지속되고 특히 삼론학이 후대까지 세력을 유지한 것은 두 나라 불교계 동향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sup>46)</sup> 한국의 경우 삼론학과 섭론학이 일찍 사라져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초기 두 학파의 사상적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일본은 삼론종의 경우 후대까지 지속되었으므로 그 사상적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져 있다. 고대 일본 삼론학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 초기 불교계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7세기말 이후 신라와 일본에는 중국 불교의 新唯識 사상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 황실의 후원 하에 크게 발전하고 있던 玄奘 문하의 신유식 사상은 당시 동아시아 불교의 最新의 사상으로서 중국은 물론 신라와 일본에도 널리 수용되고 있었다. 신라의 경우 중국에서 현장의 문하에 직접 수학하였던 義寂을 비롯하여 道證, 憬興 등이 신유식 사상을 널리 선양하였고, 이는 곧 일본에도 전해져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신라의 신유식 사상가들은 如來藏사상을 비롯한 기존의 불교 사상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던 중국의 신유식 사상가들과 달리 기존의 불교 사상에 대하여 통합적인 태도를 보였다.<sup>47)</sup> 이는 통일기에 형성된 원효의 화쟁적 사상이 이후 신라 불

에서 찾는 것은 섭론학자들의 사상과 통한다.

46) 일본에서 삼론학에 비해 섭론학의 세력이 약했던 것은 일본 불교계가 신라보다는 고구려나 백제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섭론학의 세력이 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자의 갈등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였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47) 최연식, 2003『義寂의 思想傾向과 海東法相宗에서의 위상』『불교학연구』6

교의 사상적 기반을 형성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신라의 신유식 사상가들은 당시 신라 불교의 주류적 흐름을 이루고 있던 원효의 사상과 신유식 사상을 다 같이 존중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중국의 신유식 사상과는 다른 경향을 띠게 되었다.<sup>48)</sup> 일본의 신유식 사상은 처음 신라를 통하여 수용된 것이었으므로 사상적 경향에 있어서 신라와 비슷하였다. 8세기와 9세기의 일본의 신유식 사상가들은 중국의 정통적 신유식 조사들의 사상만을 중시한 후대의 법상종 학자들과 달리 신라의 신유식 사상가들의 저술도 중시하였고,<sup>49)</sup> 여래장사상을 비롯한 다른 사상체계도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sup>50)</sup> 당시 신라와 일본의 신유식 사상의 구체적 내용을 전하는 자료는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9세기 이후 일본의 신유식 문헌에 인용된 자료들을 세밀히 검토하면 신라와 나라시대 일본 신유식 사상의 내용을 일정 정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세기 중반에 들어와 신라와 일본에는 다 같이 화엄학(종)이 크게 대두되었다. 신라의 경우 통일초에 활동한 의상이 중국에서 화엄학(종)을 수용하였지만 원효와 신유식 사상이 주류를 이루던 8세기 전반까지의 불교계에서 그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었다. 의상 자신이 수도인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수행하였고, 그의 제자들도 경주와 같은 도시가 아닌 깊은 산속을 수행의 근거지로 삼았다. 신라에서 화엄종이 대두되는 것은 8세기 중엽 경덕왕 때부터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왕실과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며 빠른 시기에 불교계의 중심적 흐름으로 등장하였다. 신라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

48) 신라의 新唯識 학자들은 如來藏사상을 선양한 《大乘起信論》을 중시하였는데, 이 역시 《대승기신론》을 중시한 원효 사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49) 橋川智昭, 2002 「日本 法相宗의 形成과 新羅 唯識學」 『한국불교학결집대회논집』1-上: 2002 「日本飛鳥・奈良時代における法相宗の特質について」 『불교학연구』6

50) 일본의 華嚴宗 개장을 주도하였던 승려들은 대부분 法相宗에 속하는 신유식 학자들로 나타나고 있다.

에서도 화엄종이 대두하였다. 740년대 천황의 발원으로 東大寺와 비로자나 大佛이 造立되고 이를 배경으로 화엄종이 개창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화엄종이 대두하였고, 일본 화엄종 개창에 新羅學問僧 審祥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아 신라 불교의 영향하에 일본의 화엄종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당시 신라와 일본의 화엄종은 사상적으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신라의 화엄종이 전적으로 의상의 사상을 따르고 있던 것과 달리 일본의 화엄종은 원효와 중국의 法藏의 사상에 의거하고 있었고 의상 사상의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sup>51)</sup> 일본의 경우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 확립을 위하여 신라를 모델로 화엄종을 개창하였지만 저술과 대외적 포교에 소극적이었던 의상계의 사상이 일본에 거의 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화엄종 조사인 法藏과 이전부터 널리 존중되고 있던 원효의 사상에 의거하여 화엄종의 사상적 토대를 형성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처럼 원효와 법장의 사상을 토대로 《華嚴經》 및 《大乘起信論》 등의 사상을 이해하는 모습은 8세기 중엽 신라 불교계 일부에서 나타났던 것으로서 이러한 사상이 일본 화엄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52)</sup> 이들 의상계가 아닌 신라의 《화엄경》(및 《대승기신론》) 연구의 사상적 흐름과 그러한 흐름이 일본에 전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8세기 전반기 신라와 일본 불교계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제와 관련되는 8세기 전반 신라에서 찬술된 《화엄경문의요결문답》과 8세기 후반에 일본의 화엄학 문헌

51) 사상적으로 신라의 의상계 화엄종이 《大乘起信論》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던 것과 달리 일본의 화엄종에서 《大乘起信論》은 주요한 所依 經論의 하나로 존중되었다.

52) 8세기 전반에 찬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皇龍寺 表員の 《華嚴經文義要決問答》은 화엄학의 주요 개념들을 法藏과 元曉의 저술들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편 華嚴寺 개창자로 전해지는 緣起의 저술들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저술 제목이나 후대의 그에 대한 평가 등으로 볼 때 《화엄경》과 《대승기신론》을 함께 증시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8세기말 이후 신라와 일본의 불교는 이질적인 모습을 심화시키며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시기에 일부이지만 신라 의상계의 화엄사상이 일본 불교계에 수용된 흔적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9세기 후반 이후 일본의 화엄학 문헌들에 사상 계통이 명확하지 않은 문헌으로 지목되어 왔던 《華嚴經問答》과 見登·珍嵩 등의 저술은 모두 신라 의상계 사상을 전하는 문헌으로 확인되었는데,<sup>53)</sup> 이들은 9세기초 전후에 일본에 수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54)</sup> 당시 신라와 일본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었고 일본 불교계에서 신라 불교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상계 문헌의 수용은 대단히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문헌이 전래 당시부터 의상계 문헌임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직 제대로 구명되지 못한 이들 문헌의 전래 과정에 대한 검토는 9세기 신라와 일본 불교계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사실을 밝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9세기 이후 일본 불교계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잡은 眞言宗에서는 《釋摩訶衍論》이라는 문헌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 책은 신라 원효와 의상의 사상을 종합하려는 것으로서 8세기 후반 신라에서 찬술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sup>55)</sup> 신라 불교 사상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원효와 의상의 사상을 종합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그러한 성격을 띤 문헌이 9세기말경 신라에서 찬술되었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sup>56)</sup> 《석마하연론》의 성립 및 일본에서의 수용 과정에 대한 면밀

53) 《華嚴經問答》은 종래 法藏의 저술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에 義相의 문도들이 기록한 강의록 중 하나로 확인되었고, 見登의 저술은 신라에서 의상계 화엄을 수학한 승려에 의해 일본에서 찬술된 것으로 밝혀졌다.

54) 崔鈺植, 2001 「新羅 見登의 著述과 思想傾向」 『韓國史研究』115

55) 石井公成, 1988 「『釋摩訶衍論』의 成立事情」 『鎌田茂雄博士還曆記念論集 中國の佛教と文化』

한 검토는 8세기 후반 이후 신라와 일본 불교계의 흐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상적 주제들 이외에 신라와 일본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불교 유물들에 대한 검토도 당시 두 나라의 불교계 동향과 상호 교류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 중요한 연구들이다. 특히 7세기 중반의 반가사유상과 7세기 후반의 雙塔 가람, 8세기 중반 佛國寺와 東大寺 같은 華嚴寺刹의 건립 등은 두 나라 불교계가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고 있지만 보다 폭넓은 해석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 맺음말

지금까지 7-9세기 신라와 일본의 불교교류에 관한 기존의 연구 내용들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7-8세기 신라와 일본은 이후 시기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긴밀한 불교교류를 진행하였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 사실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자료의 부족과 함께 오랫동안 두 나라의 불교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해 온 전통의 영향으로 두 나라의 불교교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였던 결과이다. 다행히 1970년대 이후 일부 선구적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해 당시 교류의 구체적 실상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당시 불교교류의 전모를 알기에는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신라와 일본의 불교교류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아직 미약하지만

56) 崔鉉植, 2004 「〈健孳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와 羅末麗初 華嚴學의 一動向」 『韓國史研究』126

양국의 불교교류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양국 고대 불교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로서 중시될 필요가 있다. 단순한 교류에 관한 사실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부족한 두 나라 불교계의 동향을 밝혀주는 구체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라와 일본 불교계의 동향을 서로 연결지어 고찰하면 한 나라의 불교 자료에 대한 검토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라와 일본의 고대 불교에 대한 연구는 두 나라의 불교교류에 대한 연구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신라와 일본의 불교교류에 관한 주요한 자료들은 한국에 비해 고대의 문헌과 유물이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는 일본에 대부분 전해지고 있다. 이 자료들에는 당시 두 나라 사이의 불교교류의 구체적 상황을 전하는 귀중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그동안 한국학계에서는 크게 주목되지 못하였다. 일본 고대 불교의 자료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라와 일본의 불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일본의 자료들에도 신라 불교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들 자료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일본에 전해지는 일부 옛 불교문헌들 중에는 한국에서 찬술되었거나 한국에서 수학한 사람에 의하여 찬술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한국 고대 불교와 관련 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들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한국과 일본의 불교교류는 물론 자료가 부족한 한국 고대 불교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역사 개설서 등에는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들도 제대로 소개되고 있지 않다. 이는 두 나라의 연구자와 대중들이 상대방의 불교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불교에 대한 연구에서는 인도에서 성립된 불교가 중국을 거쳐 自國에 어떻게 수용, 발전되었는지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이웃

국가로서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았던 일본 혹은 한국의 불교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특히 일본에서는 불교가 한국을 통하여 전래되었음을 무시하는 三國佛敎史觀[인도-중국-일본]의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이상적이고 정통적인 불교사상을 상정하는 이념적-종파적 이해방법으로서 실제 역사상에서 전개되었던 구체적 불교의 내용을 파악하려는 실증적-사상사적 연구라고 할 수 없다. 실제 존재하였던 역사적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한국과 일본 상대방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증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의 불교교류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함은 물론 그러한 연구 성과들을 일반에게 알리려는 노력도 아울러 제고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 Survey of the Studies on Korean-Japanese Buddhist Exchanges from 7th-9th Century

CHOE, Yeonshik

*Mokpo National University*

Though Buddhist exchanges between Silla and Japan were very vigorous, notably during the 7th and 8th centuries, much of the details have not yet been studied exhaustively. This is not only due to the paucity of historical records, but also a certain lack of interest in the topic.

However, already during the 1970s, the contours of relation between Silla and early Japanese Buddhism began to emerge. Thus, during this period it became clear that the collection of treaties had been transmitted by monks who had studied in Silla, and a more general interest in the general impact of Silla Buddhism on Japanese Buddhism arose.

Afterwards,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process of changes concerning the belief in Shotoku Taishi and other topics, such as the formation of a body of scriptures and developments in the production of

statues, all under the influence of Silla Buddhism. Furthermore, through the study of manuscript documents it was found that the establishment of Todaiji and the formation of the Avatamsaka sect(Hwa'eom jong) tradition in the middle of the 8th century likewise occurred under the influence of Silla Buddhism. In the 1980s, studies appeared which, based on ancient Japanese materials, shed light on the details of the relation between Silla Buddhism and Japanese Avatamsaka sect(Kegon shu). As a result, it became clear that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8th century Japanese Avatamsaka sect was influenced by Wonhyo and Taehyeon as much as by the Chinese master Fazang and that in 9th century also Uisang's thought was received.

On the other hand, although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also other Nara traditions, notably the Yogācāra tradition(Hosso shu), had a close relation with Silla Consciousness-only thought in both centuries, no substantial research on this phenomenon has been done. Given the importance of Consciousness-only thought in both countries, these currents should be given more attention.

Although already quite a few substantial studies on the Buddhist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ppeared, the results have not yet fully known to the general audience. Both countries still understand Buddhist history from the angle of their own traditions. However, as the pertaining materials are very limited this approach likewise has clear limitations. The comparison of Silla and Nara Buddhism will be very instrumental for advancing the understanding of the individual traditions in both countries.

**Key Words:** Nara period Buddhism, Silla Buddhism, Wonhyo, Avatamsaka  
Thought, Consciousness only Thought, Tamura Encho

2010년 11월 5일 투고

2010년 12월 18일 심사완료

2010년 12월 20일 게재확정